

“제2 창종 각오로 종단화합 진력”

진각종을 불사개혁발동

진각종이 지난해의 내용을 더하고 올해 정책 목표를 ‘종종 쇄신을 통한 제2의 창종 기반 구축’으로 정하며 3대 역점 불사행 방략을 제시했다. 진각종총무원장 회정은 1월 17일 서울 일곡동 총무원에서 불교계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화합 ▲진각문화전승원 건립 ▲사회화합 불사 등을 3대 역점 불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진각종이 상반기부터 역점을 둘 것은 종단 화합불사다. 지난해 효암 총무원장의 갑작스러운 은퇴를 겪었던 진각종은 종원종법 정비와 산하기관 운영 관리체계 강화, 관련 규정 정비 등 교법질서 확립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현 진각대학을 대학원대학으로 승격시키고 위탁대와 연계한 학위를 수여하는 등 스승 양성체계를 강화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복인도에 건립한 따보승원에 교화자를 파견해 티베트 스님들과 수행체계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진각종은 또한 교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여론 수렴 체계도 마련할 생각이다. 정기적인 정책설명회 개최와 지역 내 심인당 4-5개를 엮는 ‘교화 허브 심인당’ 개념을 도입해 신교도 중심의 능동적 교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어 눈에 띄는 불사는 지난해부터 계획해온 ‘진각문화전승원’과 ‘진각복지센터’ 건립을 함께 병행 추진하는 것이다. ‘진각문화전승원’



1월 17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는 올해 3대 역점 불사 계획을 발표했다.

은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로 2010년 완공될 예정이며, 현재는 기존 건물의 철거를 진행중이다. 이외에도 진각종은 밀교사 연구 및 종단사 정리, 북한 불교관련 자료 수집 및 관련 도서 발간 등 콘텐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진각종이 그동안 아슬아슬로 진행해 온 복지사업은 진각복지재단 설립 10년을 맞아 120명 상 규모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들어설 진각복지센터 건립, 요양보호사양성기관 설립, 미혼모 지원사업 본격화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진각종은 올 상반기 중 대구시와 함께 ‘2011 대구 육상선수권 대회 성공 기

원 대법회’를 발행하기로 했다. 또한 밀교문화 복원을 통한 심도 있는 종단 문화 발표 개발에도 진력할 방침이다. 남북불교협동농장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스리랑카에 국제학교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는 “올 상반기 중에는 지난해 문제가 됐던 내용이 완전히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가 일기 마지막 해인만큼 제2의 창종을 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지난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신교도 배가 운동과 대중 교화에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사찰-포교사간 연계 강화해야”

조계종 ‘포교사 제도 현황과 제문제’ 토론회 개최

포교인력 확대를 위해 마련된 포교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 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위원장 지은)는 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포교사의 현황과 제문제’를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포교사단 강홍원 단장을 비롯한 일선 포교사 1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포교사는 1980년 ‘법사’ 상임포교사의 명칭으로 선발 운영되다, 1995년 현재의 포교사 선발제도도 변형·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5000여 명의 포교사를 배출해, 현재 2981명이 자격을 유지·활동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지적되고 있는 포교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포교사’에 대한 역할과 활용방안을 규정하는 법령이 미비해 실제 사찰에서의 포교사 활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포교사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이 거론됐다. 또한 포교사단을 운영하는 제정과 인력 부족으로 활용도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 주지)은 “우수한 포교사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음에도, 일선 사찰과의 연계 부족으로 일선 사찰에서는 전문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찰과 포교사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포교사의 재직사찰 활동을 평가할 방식을 도입하거나 포교사 선발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재직사찰 내의 봉사활동을 주지스님이 평가하는 방법, 포교사단 내 사찰의 지원하는 팀을 조직하는 방법 등이 대안으로 제기됐다. 이 밖에도 포교사단 내의 팀조직을 유기적으로 분할 조정하고, 자체 교육제도를 정비하고 표준활동 지침서를 제작해 포교활동의 정제화를 도모하는 의견도 개진됐다. 정법 스님(중앙종회의원)은 “현재 종단 내 포교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활동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영 기자

“교회 투표소 개선 노력할 것”

중앙선관위, 선교회 재발방지 방안 마련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7대 대선에서 불거진 교회 투표소의 선교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에 일부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조계종 중앙선교회 산하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종평위)가 지난해 12월 19일 접수한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에 관한 공문’에 대해 1월 9일 이 같이 회신했다. 중앙선관위는 회신문에서 “종평위의 요청내용에 따라 공문에서는 중앙선관위의 종교시설 투표소 선결과 시설이용에 대해 설명했고 일부 종교계에서 발생한 선교회 문제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교육을 병행,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평위는 14일 논평을 발표하고 “중앙선관위의 공문내용을 보면 이용원칙 등이 명시돼 있어 불교계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중앙선관위에 현대화된 사찰과 복각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설현황 자료를 제공해 2008년 4월

총선에 선택되거나 꾸준히 확대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며 이런 요청에 중앙선관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구두답변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종평위의 노력은 종교적 대립을 지양함에 있다”고 강조하며 “종교계의 협력성을 개선함은 물론 향후 중앙선관위의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와 특정 종교계의 선교회에 대한 대책과 노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 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 종자연은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갈등 조장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선거의 신뢰성을 위해 투표소를 다른 공공기관이나 시설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자연은 앞으로 종교시설 내 투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펼치는 한편, 이로 인해 침해되는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여수영·김강진 기자

“태안 주민에 희망을”

불교계 성금 잇달아

지난해 12월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피해주민을 위한 성금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대구 동화사(주지 허운)가 1월 16일 성금 800만원을, 고양 흥국사(주지 대오)가 17일에는 성금 500만원을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에 전달했다. 16일 열린 전달식에서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직접 피해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하지만 지역 여건상 찾아가기 못해 교구본사와 말씀을 비롯한 지역 사부대중과 대구 지방경찰청 경성도입이 정성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자연이 하루 빨리 회복돼 건강한 생활 터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은 17일 지관 스님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지난해 동지부대 신도들이 정성을 모아 모금 활동을 펼쳤다”며 “앞으로 불교계가 피해복구 및 지원에 많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영 기자

후 대통령 당선자 대우하 추진 의지 표명

시민단체 “특별법 중단해야” 반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1월 14일 열린 신년 첫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자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대운하가 민자사업임을 강조했다. ‘정부 예산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은 대운하 건설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반도 대운하 구간 중 민자로 추진하는 곳은 경부운하 뿐, 호남과 충청 운하는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어 이 당선자는 “대운하 사업에

대항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다”며 “정계권을 복원할 때 반대자를 4000번 넘게 만나 설득했다”는 말로 대운하 추진 의지를 드러내 보였다. 기자회견 후 18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1월 14일 성명을 내고 “대운하 특별법 추진 중단 및 인수위 내 대운하 TF를 해체하는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 하고 나섰다. 또한 “대운하는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투자외곽과 땅값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을 통한 단기적인 경기 부양의 유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영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간과 장치를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 발행·편집인: 박혜월 | 인쇄인: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 온라인서점 예시어론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055)355-7472
울산지사: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충청지사: (043)732-5560	광주지사: (062)268-1508
전북지사: (063)910-5199	영주지사: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특목번호: 4-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2008학년도 대원불교대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서울, 부산]

불교대학 최초 명상학과 개설 / 대학원 과정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개설 / 법사과정(3년제) 신설
2008학년도 입학생 전원에게 50% 장학 혜택이 주어집니다

모집과정

- 대학 과정(서울·부산)
 - 입문과정(부산): 주간, 야간 각 00명
 - 불교학과(서울·부산):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서울·부산):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 명상학과(서울·부산):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 대학원 과정(서울·부산)
 - 불교학과(서울·부산): 야간 00명 [주 2회 출석]
 -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서울·부산):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 법사 과정(서울·부산)
 - 법사과정(서울·부산): 주·야간 00명 [3년제, 주 2회 출석]

강의시간 ● 주간 -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 야간 - 오후 7시부터 9시 40분까지

지원자격 ● 대학 과정: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일반 분자 및 직장인 환영)
● 대학원 과정: 불교학과 - 불교 교양 대학 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
●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상담학과 졸업자, 상담심리과정 이수자
● 법사과정: 불교전법활동을 원하는 자. 포교원, 사찰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전형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2007년 12월 1일 ~ 2008년 3월 31일
● 입문·대학·대학원 전형: 서류 전형

입학식일시 ● 부산대원불교대학: 2월 23일(토) 오후 2시 대원불교대학2층 큰법당
● 서울대원불교대학: 2월 24일(일) 오후 2시 다보빌딩 3층 다보사 큰법당

※ 전화 신청 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 등록금 납부 시 카드 결제 및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학과목 소개

- 대학과정
 - 불교학과: 불교개론, 인도불교사, 불교의식의 이해, 초기불교의 이해, 반야사상, 부파불교의 이해, 불교경전 강독, 유식사상, 중국불교사상, 정토사상, 화엄사상, 선사상, 한국불교사상.
 - 명상학과: 불교명상학의 이해, 종교명상학의 이해, 선이론, 명상교수법 명상학연구, 간화선의 이해, 위빠사나수행의 이론과 이해, 인도불교명상의 이론과 이해.
 -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불교와 심리, 상담의 실제, 상담심리학의 기초, 집단상담의 실제, 성격심리학, 불교학개론, 초기불교의 이해, 반야사상, 불교와 마음치료, 불경과 상담, 발달심리학, 상담실습, 심리평가, 유식사상, 화엄사상.
- 대학원과정
 - 불교학과: 초기불경강독, 종관학연구, 부파불교연구, 정토사상연구, 초기불교연구, 유식학연구, 대승불전강독, 화엄사상연구
 -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상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상담면접 및 실습, 집단상담실습, 심리검사, 상담자교육, 인지치료 및 이해, 청소년상담 및 실습
- 법사과정
 - 불공의식, 정례의식, 사찰습의, 설법연구, 설법이론, 설법실수, 사찰경영론, 신도관리론, 중무행정론 외

교수 소개

- [불교·명상학과 및 법사과정]**
- 해거스님: 금강선원장
 - 정영수 교수: 동경대학사,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 송석구 교수: 전 동국대 총장, 철학박사
 - 김홍철 교수: 고려대 명예교수, 남명학연구원 원장
 - 조성택 교수: 고려대 철학교수
 - 윤원철 교수: 서울대 종교학과교수
 - 허경우 교수: 인도네시아시힌두어대학교 박사과정수로
 - 김시원 교수: 일본국립경도대학교 박사과정수로
-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전현수 교수: 전현수신경정신과원장
 - 심지은 교수: 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수로
 - 김은희 교수: 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수로
 - 권경희 교수: 연세대 교육대학원상담교육 전공, 상담전문가
 - 미산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 지성 스님: 대원정사주지, 초의차령상원장
 - 김용정 교수: 동국대 명예교수, 철학박사
 - 권기중 교수: 동국대 명예교수
 - 김향배 교수: 동국대 철학교수
 - 정취옥 교수: 일본동경대학교인도철학과 석사
 - 최봉수 교수: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과정졸업
 - 김재성 교수: 일본동경대학교대학원 석사과정졸업

특전

- 법사과정 졸업 후 법사고시에 응시, 합격자에 한하여 법사수료증을 수여
- 불교전문심리상담사 1.2급 자격증 부여
- 명상전문지도사 1.2급 자격증 부여

문의

- 서울: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3층 / 전화 02)707-1072, 706-1571
- 부산: 부산 금정구 장전동 382-3 / 전화 051)583-7811